



## 안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안전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회의와 교육 또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해를 통해서 배워왔고 체험하여 왔습니다.

고의적으로 다치는 것이 아닌데도 재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도 상당수가 개인의 부주의나 무관심 또는 고집에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숙한 것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받은 것을 그대로 실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 현장에는 안전에 관한 많은 수칙과 지침이 준비되어 있으나 냉정하게 비추어 볼 때 과연 이러한 수칙이나 지침들이 잘 지켜지고 이행되는지 의심스러운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좋은 수칙이나 지침이 있으면서도 타성에 젖어 그대로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엄격히 준수하고, 잘못된 규칙은 수정·보완하는 체제가 반드시 확립해야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했어도 재해는 없었는데 귀찮고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안일한 생각에 재해의 잠재성을 가진 행위를 하기도 하고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을 수시로 볼 수 있습니다.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예기겠지만 모든 관리감독자는 늘 되풀이되는 간단하고 반복적인 일이라도 반드시 확인을 철저히하여 지시된 순서대로 일이 처리되도록 감독하고 확인해야만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안전한 행위가 작업현장 내에서만 이루어 질 것이 아니라 항상 몸에 배이게 하여 어떤 곳에서도 불안정한 행동과 불안정한 상태를 제거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부주의로 재해를 입었다면 본인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회사에서의 재해 또한 본인의 영원한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